20세기 한국미술의 아름다움 시기별·유형별 탐색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한국 근현대미술의 미의식에…

이주영 지음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말이 있다. 특수성과 보편성을 아우르는 말이다. 그렇다면 한국적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 나아가 한국적 미의식이라는 말은 무엇을 뜻할까.

일반적으로 한국적인 것은 "한국을 이루는 지역과 그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역사 및 문화와 밀접하게 연결된 특성"이다. 좀더 확장해보자면 "우리나라의 정치·사회·문화적 현실을 깊이 인식할 수 있게 하는 작품", "우리 사회의 삶의 내용을 형식속에 담아낸 작품", "한국의 역사와 상황들의 기억을 담아낸 작품"으로 정의될 수 있다.

20세기 한국미술의 아름다움을 조명한 책이 출간됐다. 독특한 시각으로 시대 초상을 형상화한 근·현대 작가들이 책의 주인공이다. 이주영 서원인문사회미학연구소 대표가 펴낸 '한국 근현대미술의 미의식에 대하여'는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우리의 미의식'이 주제다. 책에는 홍익대 미대와 동 대학원 미학과를 졸업하고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철학과를 수학한 저자의 지적 편력이 스며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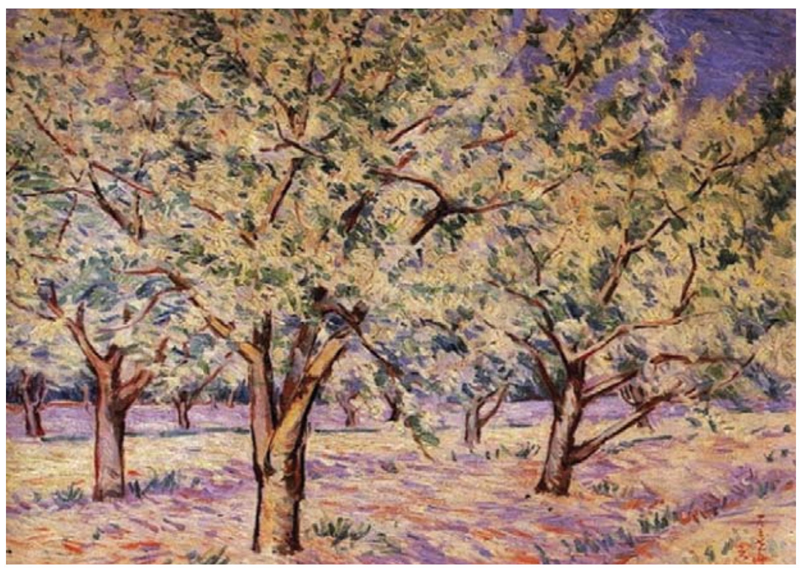
그렇다면 한국 예술의 미의식은 무엇일까? 저자는 시기별, 유형별로 미의식을 탐색하며 구상, 추상, 리얼리즘, 극사실회화를 들여다본다.

먼저, 구상작가들은 충실한 회화적 기량, 색체처리, 화면 균형감에 집중했다. 사실적 재현의 초점은 인간과 자연, 환경이다. 인물이 중심이 되거나 자연과 어우러진 인간의 모습이 화두다.

"이러한 작품으로는 근대 서양화 기법을 처음 선보인 고희동, 김관호 등이 남긴 자화상, 인물화 등이 있다. 이종우, 도상봉, 손응성 등에게서도 인물을 대상으로 삼은 사실적 기법이 두드러진다. 작가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3차원적 양감과 자연색, 정확한 데생력이다."

특히 저자는 인상주주의 한국적 토착화를 정착시킨 화가로 오지호를 꼽는다. 선명한 보라색과 청색의 대담한 사용은 인상파 기량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추상은 근현대미술사, 특히나 한국의 경우는 중요한 위상과 직결된다. 추상미술의 미적 가치는 '자연'과 연결돼 있으며 한국인의 자연관은 삶의 리얼리티를 반영한다.



인상주의의 한국적 토착화를 정착시킨 오지호의 '사과밭' 〈미술문화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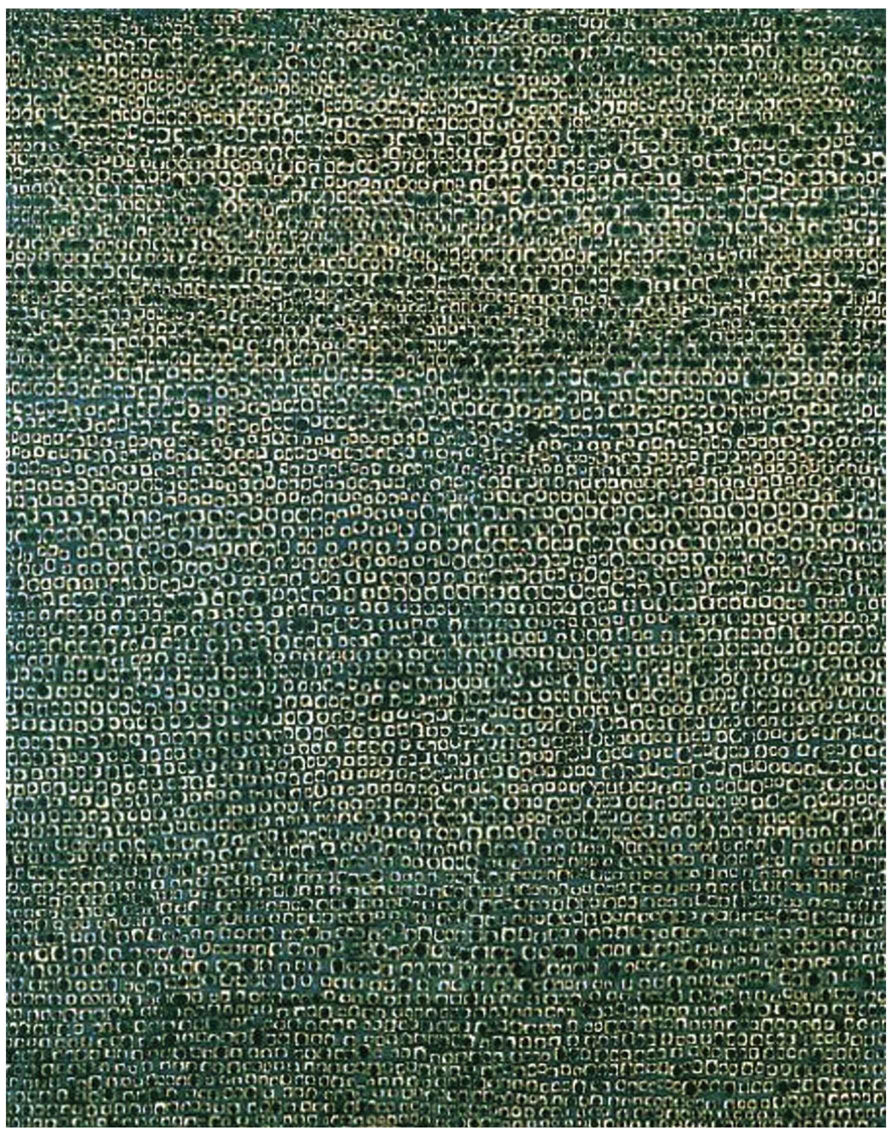
"한국 추상미술의 선구자 김환기는 자연환경이 미술에 미친 중요한 영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1957년 9월 초 남프랑스 니스에서 개인전을 하면서 니스 방송국에 초대받아 한국미술가로서 고국의 자연과 문화를 소개한다. 여기서 그는 푸르디푸른 하늘과 바다에 둘러싸여 있는 한국인들이 푸른 자기인 청자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1980년대 진보적 성향의 미술가들의 주된 창작방법론은 비판적 리얼리즘이다. 그 가운데 '현실과 발언'은 '비판적 리얼리즘'(현실주의)을 지향하는 미술동인이다. 루카치가 제시했던 리얼리즘미술과 어느 정도 부합되는데 인간관, 현실관, 세계관이 그렇다.

저자는 "오윤의 작품은 민중의 전형을 형상화하고 그들의 미의식을 표현하여 리얼리즘미술과 민속미술을 결합한다. 임옥상의 '보리밭'에서 원근법을 무시한 소재의 배치와 형상의 강한 표현은 고된 노동의 삶을 살아가는 농민의 전형을 보여준다"고 강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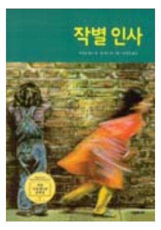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극사실화는 80년대 한국의 신형상미술과 관련이 있다. 시각기호의 의미와 미적 가치가 중요 관심사로 인간과 자연의 소재를 다룬다. 이들은 "흙(서정찬), 돌(고영훈), 벽돌(김강용), 모래(김창영), 벽(이석주) 등과 같은 자연 대상이나 자연가공물, 그리고 주변 환경의 흔한 소재들"을 즐겨 사용했다. 〈미술문화·2만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한국 추상미술의 선구자 김환기의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연작' 〈미술문화 제공〉

작별 인사 — 김영하 지음



1995년 계간 '리뷰'에 '거울에 대한 명상'을 발표하며 작품활동을 시작해 장편 '살인자의 기억법', '너의 목소리가 들려', '검은 꽃', '아랑은 왜',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등을 발표하며 한국문단의 중심 작가로 떠오른 김영하.

그가 7년만에 선보이는 장편소설 '작별인사'는 낯선 세상에 갑자기 던져진 존재들의 이야기다. 작가는 새로운 세상에서 다양한 타자들과의 만남과 연대를 매개로 진정한 모습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다.

어느 날 17세의 소년 철이는 낯선 곳으로 끌려가게 된다. 갑작스럽게 맞닥뜨린 환경에서 소년은 고난을 겪게 된다. 다행히 그곳에서 만난 친구들의 도움으로 삭막한 하루를 견뎌간다. 소설은 탄탄한 구성과 스케치를 한 듯한 묘사력, 장대한 스케일과 어울려 특유의 재미를 선사한다. 숨 가쁘게 전개되는 이야기는 과연 인간이란 어떤 존재이며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지 숙고하게 한다.

작가는 '작가의 말'에서 "침대 머리맡에 멍하니 앉아 있는 것처럼 보여도 아침의 인간은 어제의 인간을 취조중인 것이다. 어제의 내가 저지른 일을 오늘의 내가 납득하고 받아들이게 될 때 비로소 나는 다시 내가 된다. 나는 아직 나이며, 다른 누구도 아니다"고 말한다.

한편 이번 소설은 '밀리오리지널' 종이책 정기구독 세 번 째 책으로 기획됐다. 국내 최대 월 정액 독서앱 밀리의 서재가 지난해 10월 15일 정규 론칭한 전자책과 종이책 결합 상품이다. 전자책은 기존처럼 무제한으로 이용하고 밀리 오리지널 한정판 종이책을 두 달에 한 권씩 받아볼 수 있다. 〈밀리의 서재·1만4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너의 거기는 작고 나의 여기는 커서… — 김민정 지음

김민정 시인은 문인으로서도 편집자로서도 역량을 인정받는다. 1999년 문예중앙 신인문학상에 '검은 나나의 꿈' 등 9편의 시가 당선돼 문단에 나왔으며 지금까지 '날으는 고슴도치 아가씨', '그녀가 처음, 느끼기 시작했다', '아름답고 쓸모없기를' 등을 펴냈다. 1998년 잡지사에 일을 시작해 2005년 문예중앙에서 40여 권의 시집을 만들었다.

이번에 펴낸 시집은 제목부터 이색적이다. '너의 거리는 작고 나의 여기는 커서 우리들은 헤어지는 중입니다' 지극히 시적인 제목은 그녀의 시에 대한 자의식과 열망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김민정의 시는 삶을 미려하게 그리지 않는다. 예민한 촉수와 독특한 렌즈로 대상을 바라본다. "시에다 씨발을 쓰지 않을 것이고/ 눈에다 졸라를 쓰지 않을 것"('1월 1일 일요일')이라는 다짐한다. 그러면서도 "징그러 아주 그냥 지긋지긋해 집에 와 김치 넣고 고추장떡이나 부치며 소주나 따르면서"('시는 안 쓰고 수만 쓰는 시인들')생각한다.

이번 작품집의 화두는, 눈앞에 없는 것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환영이다. 이를 일컫는 언어는 바로 '곡두'. 시인은 그동안 관심을 두지 않았던 '낯선 이웃들'에게 시선을 향한다. 국내외 외국인 노동자 등이 그런 존재들이다.

"한국 다시 온 지 넉 달 되었어요. 들어갔다가 또 나왔어요. 한국 좋아서요. 왔다 갔다 10년도 넘었어요. 마사지는 스무 살에 배웠어요. 나 힘이 세서 손님들이 좋아해요. 나는 서른세 살요"('나를 못 쓰게 하는 남의 이야기 셋' 중에서)

박준 시인은 해설에서 "문학이든 삶이든 죽음이든 우리의 '거기'가 한 품 더 너르고 커졌으니 시인의 경계가 이렇게나 아름답게 넓어졌으니"라고 평한다. 〈문학과지성사·9000원〉

휴머놀로지 — 루크 오닐 지음, 김정아 옮김

"세포는 DNA 복제가 벌어지는 그릇이고, 우리가 지구에서 보는 생명체는 모두 하나같이 지금도 DNA를 복제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정의에 따르면 우리 인간은 그리 대단한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지구에 존재하는 전체 DNA 중 기껏해야 아주 일부만을 보유할 뿐이다."

인간 존재와 생명의 의미를 과학과 역사, 문학, 예술 등의 분야로 망라해 설명한 '휴머놀로지'가 출간됐다. 세계적인 면역학자이자 과학 저술가인 저자 루크 오닐 교수는 가장 대조적인 분야인 예술과 과학을 비교하며 인간을 설명한다. 예술가와 과학자는 모두 '인간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라는 질문에 끊임없이 답을 찾는 존재라는 것이다.

책은 산소와 유전자의 우연한 만남을 통해 세포라는 생명체가 탄생했다며 현 인류가 지구를 공유하는 하나의 뿌리라는 해석을 내놓는다.

이를 시작으로 생명체의 기원부터 현존하는 호모사피엔스 종이 어떻게 인간으로 살게 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고 번식을 하며 생명을 이어가는지, 왜 인간은 다른 종과는 달리 음악과 웃음을 사랑하는지, 인공지능이 정말로 우리의 미래를 위협할 것인지 등 세포로부터 진화한 42억8000만년의 인류 역사를 흥미롭게 풀어내고 있다.

저자는 "내 목표는 생명이 무엇인지, 인간으로 존재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데 과학이 얼마나 뛰어난 방법인지를 알리는 것이다"며 "생명의 기원으로, 나아가 '인간학 (Humanology)'으로 향하는 이 흥미로운 여정을 함께 떠나보자"고 전한다. 〈파우제·1만9000원〉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